다문화 가족의 이중언어교육 필요성과 정책 제안*

권순희**

<차례>

Ⅰ. 서론
Ⅱ. 다문화 가정 양상과 이중언어교육
Ⅲ. 호주의 이중언어교육 정책
Ⅳ. 이중언어교육 정책 제안
Ⅴ. 결론

Ⅰ. 서론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에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사례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사회는 영어몰입교육에만 교육적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다중언어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즘 원어민 수업, 영어로 수업을 전개한다는 국제중학교 허가 등 영어몰입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 사회이고 다중언어를 구사해야 할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시대 요구에 맞춰 다중언어교육 정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문화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이해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이중언어교육 정책은 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 정책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고,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어떤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한 가지 이상일 때 이중언어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언어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한국어를 제1언어로 물려받고 학교 교육도 제1언어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제2언어를 가르치더라고 항상 제1언어가 가장 강한 언어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 익힌 언어와 학교교육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루어진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과 이중언어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제2언어로서의 국어교육(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으며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를 낳는다. 국제화 시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교육은 미래 사회를 준비할 학생들에게 필수 사안이 되고 있다. 미래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더 많이 진

---

* 이 발표자료는 국어교육학회 34집에 실린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논문의 일부이다.
** 전주교육대학교 조교수, shkwon@jnue.kr

입할 것이며 인구 구성의 다양화로 다문화 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 변화는 향후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외국인 및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많은 문화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민과는 다른 인종, 종교, 혈통, 민족,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거나 배척 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겹쳐 내국민과 이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프랑스 폭동 사태나 호주의 크노룰라 사태가 이러한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철학, 인류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여성학 등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다문화 사회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다원주의 국가의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사회에서 주류 인구집단(majority)이 아닌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들은 뿌리 깊은 한국의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신화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 문제가 되었다. 국민 생활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할 때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문화,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현재 학교 교육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2006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조영달 외 2006, 오은순 외 2007 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구축(조혜영 외, 2007 등)"은 성과있는 연구물이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 또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등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처가 되고 있다.

언어 생활의 일환으로 이중언어교육 역시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언어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통합기제로서 그 역할이 크게 강조되어 소통[1]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중언어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북미,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일찍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호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이중언어교육을 통한 이주자통합정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타자에 대한 몰이해로 다문화 사회가 도전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호주는 1990년대부터 소수민족언어 집중 교육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여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고,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문화 간 교류 능력을 배양하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데 기여하는 이중언어 정책과 이주민과 호주인의 융합을 위한 영어 교육 지원 정책과 소수언어교육 지원 정책이 그것이다. 호주의 사례는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

1) 고부간의 갈등으로 의사소통의 단절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두어 조각이 상한 귤을 상한 부분만 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먹으려는 시어머니와 조금이라도 상하면 귤 한 개 전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와의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자. 표면적으로는 언어나 행동의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각 개인의 '삶의 역사', '삶의 문화'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이라 해석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기나 1970년대 전반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이루었던 시어머니와 197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나 경제 호황기인 1990년대 가정을 이루고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며느리는 살아온 경제적 문화, 지적 문화 배경이 다르다. 이 사실로 보건대 의사소통은 곧 문화의 소통이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

Ⅱ. 다문화 가정 양상과 이중언어교육

다문화 사회 진입 과정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 공간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도 한국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18,769명이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 재학생은 1,40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재학생 18,769명의 부모의 국적[2]을 살펴보면,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이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재학생 1,402명의 부모 국적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이다(부록 참고). 그러나 2006년부터는 중국, 베트남[3], 일본, 필리핀 출신인과 국제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학생들의 배경국가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에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있다는 논의가 그동안 있었다. 이에 더하여 외국에 장기체류한 후 귀국한 가정[4], 재외동포 중 역 이민 온 가정[5] 등도 다문화가정 사례에 추가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종류에 따른 사용 언어와 언어 교육의 방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문화가정 양상과 언어 교육 방향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종류	사용 언어	언어 교육 방향
국제 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 → (2세 한국인)	한국어, 어머니 나라의 언어(소수 언어)→(부분) 이중언어(한국어 우세)	이중언어교육, 한국어 부진아 교육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정 → (2세 한국인)	한국어, 아버지 나라의 언어(소수언어)→(부분) 이중언어(한국어 우세)	이중언어교육, 한국어 부진아 교육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이주한 후에 이룬 가정→(2세 한국태생)	부모의 언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이중언어교육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이 이주한 경우→ (1.5세대 본국태생)	부모의 언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이중언어교육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입국한 가정	북한어, 부분 교정 남한어	한국어 교정, 방언 허용
	입국한 후 남한에서 형성된 가정	북한어, 남한어	한국어 부분 교정, 방언 허용
재외동포 및 장기 외국 체류 귀국 가정	입국 재외 동포 가정, 재외동포 중 국제결혼가정 등	부분 한국어, 외국 체류지 언어 등 다양	한국어 보완, 외국어 유지
	장기 외국 유학 가정	한국어, 외국 체류지 언어 등	한국어 보완, 외국어 유지

2)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가 한국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보다 많다.

3) 사기 결혼, 남편의 구타 등 국제결혼여성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자 필리핀 정부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진출하게 된다.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시작된 국제결혼은 베트남, 캄보디아로 이동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교육 정도(학벌) 또한 낮아지게 된다.

4) 지금까지의 다문화 가정 정책연구에서 제외되었던 가정의 형태이다. 논의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에서도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귀국자녀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곤 하였다. 이 문제는 정책 시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5) 재외동포의 가정이 한국에 귀국할 경우에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문화를 낯설어한다. 이들도 다문화 가정에 포함시키고 국가의 여러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한 때 브라질로 이민(2008년 현재 브라질 이민 100주년) 간 사람들이 일본 경제가 좋아지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마을을 형성하며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해군(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독일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1. 모어와 계승어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어는 “개개인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배운 첫 언어로 통계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도 이해하는 언어(박정은, 2007 : 38)”라고 정의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두 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접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게 모어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엄마의 A언어와는 달리 아빠로부터 B언어를 익혔다고 해서 이를 부어(父語)라고 하지 않고, 가정에서 익힌 언어이므로 B언어도 모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형태 중 다수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은 이민자로 구성된 외국의 다문화 가정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의 언어 정책을 고려하되,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보완 개발해야 한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보통 부모 나라의 언어가 모어가 되고 한국어가 제2언어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익히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모어는 가족어이기도 하다. 모어를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라고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모어를 교육받지 못하여 이를 사장시킨다면 부모에게 물려 받은 언어가 계승어가 되지 못한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게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언어가 모어가 되느냐 계승어가 되느냐, 이민온 엄마나 아빠의 언어가 모어가 되고 계승어가 되느냐의 문제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다. 반면에 이를 유지시켜 줄 사회적 제도 차원, 교육적 제도 차원의 논의는 국가의 선택에 달려있다.

2.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배경은 이중언어교육이 많이 연구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이중언어교육은 두 방향을 띠고 있다. 하나는 이민 온 소수민족들의 보호를 위해 그들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쳐 언어의 통일을 꾀하려 했던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소수의 국가 엘리트들의 물리적, 정치적 권력의 유지와 재창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소수민족들을 위한 본격적인 이중언어교육은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1968년 미국의 상하의회에서 통과한 ‘이중언어교육법’이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안은 첫째,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학습지진아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시골 벽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법이다. 둘째, 이 법안은 모어가 영어가 아닌 어린이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최대한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소수민족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실시는 Bereiter & Englemann(1966)과 Jensen(1969) 같은 교육 심리학자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 결함론(deficit theory)’에 근거를 둔 단일 언어교육의 교육적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언어 상이론(different theory)’을 논의하였다. 언어 결함론이란 글자 그대로 어떤 언어는 우월하고 어떤 언어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반면에 언어 상이론은 우월한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언어가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초창기에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소위 ‘용광로’로 비유되는 ‘동화정책’에 입각한 표준 영어 교육을 하였다. 그리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어 영어 특별교육까지 시키게 되었으나 수십 년 동안 실시해 온 단일 언

어 교육의 결과가 실패로 나타났다. 소수민족 어린이들이 상당수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나가 문제아가 되었다. 개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부모로부터 배운 모어가 학교생활의 출발에서부터 거부당한 셈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위축되고 공부에 흥미를 잃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언어결함론에 바탕을 둔 언어교육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이론이 '언어 상이론'이고 이에 입각하여 제안된 것이 이중언어교육이다. 영어 하나로만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치거나 소수민족의 언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졌다.

간단하게 논의한다면, 이중언어교육은(bilingual education) 학습자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이중언어'는 복수개념으로 두 개만을 뜻한다기보다는 '두 개 이상'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중언어교육을 두 개의 언어로 한정한다고 해도 두 가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두 개의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두 개의 언어를 통한 교육'이란 뜻도 내포하고 있다. 즉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이냐, 이중언어로 가르치는 교육이냐의 구분이다.

이중언어교육은 필요한 것인가? 평등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을 살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중략)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6].

유네스코 헌장 제1조에는

> 제 1 조 (목적과 임무)
> 1. 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서문과 헌장 1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풍습과 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은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할 의무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들 사이의 소통 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알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언어의 차별 없이 교육을

6) 2008년 11월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 : //www.unesco.or.kr/front/main/) 자료센타 참고

받을 권리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이중언어교육의 목표

외국에서 수행되는 이중언어교육의 특성이나 원리, 목표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중언어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소수, 다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중언어주의
(나) 두 개의 언어에 대한 동일한 유창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언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중언어능력
(다) 모든 과목에서 더 나은 교육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목표의 설정은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한 목표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높은 학업 수행과 자아 정체감 형성이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화합이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업 성취 능력 향상, 자아 정체성 확립,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가)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나)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다)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4. 이중언어교육의 현황

(1) 제도적 측면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언어를 인정하고, 다언어 사용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매년 2월 21일을 '국제 모국어 날'로 지정하여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며 모국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고 있다.

EU에서는 '모국어+2'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조기에 모국어 이외의 2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시민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에 의사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국어 외의 2개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경제 공동체 EU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이다.

미국에서는 1964년 인권법 개정을 계기로 소수 민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일환으로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과 1974년 교육기회 균등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이중언어교육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카터 행정부에서는 외국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국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이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외국어 과목이 확대되고 새로운 외국어 과목이 신설되었다. 외국어 학습시설에 대한 개선, 교재 개발,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수법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국어도 아시아권 언어로 일본어와 중국어의 뒤를 이어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었다(손호민, 1990 ; 이선근, 2007).

미국정부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초등학교(유치원 1년 포함)와 중, 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

하여 1993년부터 1996까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네 개의 외국어교육협회에 의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의 기준을 개발하였다(손호민, 1990). 외국어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목표를 5C로 규정한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의사전달(Communication), 문화터득(Cultures), 다른 학과목과의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다문화 사회에의 참여(Communities)가 그것이다.

(2) 이중언어교육 방법

이중언어교육 방법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Dicker(1992 ; 백종학, 심진영, 1993 재인용)가 보고한 미국의 다섯 가지 이중언어교육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가) 전환성 이중언어교육(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소수 언어계 아동들을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도구로 영어를 가르치되 일단 영어를 습득하고 나면 학습자의 기존 언어는 버려야 한다. 이민자들을 가능하면 빨리 미국의 주류 사회에 흡수시키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 방법이다.

(나) 유지성 이중언어교육(maintenance bilingual education)
이 역시 소수 언어계 아동을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전환성 이중언어교육과 다른 점은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이다. 이중언어 사용에 따른 인지 발달과 자기 민족에의 자부심 확산 등 이로운 점이 있으나 보통 등한시되고 있다.

(다) 캐나다식 영어, 불어 이중언어교육(the French Canadian immersion mode)
다수 언어계 아동들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데 유용하게 고안된 방법으로 미국 내 몇몇 학교에서 모방 실시되고 있다. 모든 언어학습은 제2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와 불어의 읽고 쓰는 능력을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라) 병행성 이중언어교육
소수 언어계 아동과 다수 언어계 아동을 한 자리에 섞어 놓고 두 언어를 함께 학습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다. 아동들은 상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현재는 실험적 단계이지만 아주 유망한 방법이다. 양측 아동들의 부모가 상대방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가능한 교육 방법이다.

(마) 외국어 교육
유년시절부터 외국어에 노출시키는 교육이다. 제2언어의 습득이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에 유리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향상시킨다고 믿고 시행하는 교육 방법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 언어는 외국어 학습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위 다섯 가지 방법 중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전환성 이중언어교육이다.

(3) 이중언어교육 수용의 긍정적 입장

영어가 세계무대에서 주요 언어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신창용(2006)에서는 영어가 링구아 프랑카로 군림하는 것은 언어적 다양성을 좌초시키는 획일화된 언어 제국주의를 낳고 국제 사회의 고른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뿐만 아니라 가치를 표현하고 사고를 규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영어가 세계 사회의 링구아 프랑카로 군림하는 것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은연중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소수 언어를 인정하고 소수언어가 세계 무대에서 고루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민족 언어에 노출될수록 주류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늦어지거나 소수언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면서 주류사회의 적응을 느리게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 존립 차원에서 단일언어교육을 하여 통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May, 2005).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쟁이 되었던 영어 조기 교육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조기 교육을 하면 언어의 혼란을 가져와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한두 차례의 논쟁으로 끝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7].

이중언어교육이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단일언어교육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것이나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단일언어교육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중언어교육의 파급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이중언어교육 수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으로 확고해진다.

① 엄마의 언어로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의 언어는 모유와 같은 것이다. 양육을 하는 엄마는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고 언어적 경험이 풍부한 언어로 육아를 할 권리가 있다(박정은, 2007 : 84). 외국인 엄마들이 한국에서 육아를 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교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엄마의 철학(사고 방식)에는 온갖 문화요소가 배어 있다. 엄마에게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아이를 교육할 때에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엄마가 언어적 경험이 부족한 현지어인 한국어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교육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여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엄마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엄마의 아이 양육을 비교해 보자. 아이를 데리고 공원을 지나가다가 “빨간 꽃이 있네. 이게 빨간 꽃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엄마와 “빨간 꽃이 있네. 이게 장미라는 꽃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엄마가 사용한 간단한 문장에서도 어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 표현을 듣고 자라느냐의 문제는 아이의 사고의 폭에 큰 영향을 준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장미 이야기, 장미 축제 이야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이야기 등을 얘기해 주는 엄마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빨간 꽃이라는 표현 외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하는 엄마를 둔 아이의 교육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특히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인 것에 대한 표현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아동기에 정의적 영역에 대한 감각을 키워줘야 한다는 교육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는 표현상의 어려움은 아이들의 감성지수를 키워주는 어려움과도 직결된다.

② 모어는 자녀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준다.

엄마의 언어를 알아야 아이가 커서라도 엄마 가족과 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언어, 모어일 것이다. 국제결혼을 해서 남편의 나라에 살고 있고 자녀들이 엄마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국제결혼 이민자는 말 그대로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어버린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역시 엄마 가족과는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인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이나 시댁가족의 강압적인 결정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아이를 키운다면 한정된 한국어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 시댁 가족들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어를 더 잘 해야 한다고 종용할 뿐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는 문화적인 공감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 깊이 있는 양질의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양육을 담당하는 엄마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편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아

7) 이중언어교육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동화주의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게 질적인 언어이다. 장차 커서 아이가 취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를 질적인 언어라고 하지 않는다. 엄마와 깊은 소통 관계를 맺은 아이는 엄마로부터 언어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습득할 수 있다.

③모어는 자녀의 지능 발달, 학습능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주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현지어로 사용언어를 바꾼 경우, 부모의 현지어 실력이 모어와 같은 정도로 높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의 지능 발달과 학습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박정은 2007 : 97). "어른이 아이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가?""아이가 말을 꺼낸 화제에 대해 어른이 어느 정도 발전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아이의 학습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은 두 언어간의 전이, 즉 두 언어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가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언어는 꼭 현지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이중언어 관점에서 본다면 엄마의 현지어 구사능력에 관계없이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는 언어,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이다.

④ 이중언어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언어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각 지역의 소수집단의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연구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목할 것은 계승어(heratage language)교육에 대한 강화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아니라, 영어 단일언어주의에 의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외국어교육을 위해 교사를 채용하고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교육예산의 일부를 할애해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외국어 유창성과 정확성은 가정에서 배운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박정은 2007 : 106).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모어교육에 신경을 써서 그들을 이중언어 구사자로 키워야 한다.

5.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 의식 조사

결혼이민자 29명을 상대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서면과 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한국어로 답하기 어려워하는 필리핀인은 영어로 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주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 및 외국어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이다. 캄보디아인,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을 상대로 한 설문이었으며, 각 나라별 인원 비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결혼이민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대상 결혼이민자 정보 (단위 : 명, %)

국적	중국	11(40.7)	한국체류 기간	1년 미만	1(3.7)
	필리핀	8(29.6)		1~2년 미만	5(18.5)
	일본	7(25.9)		2~4년 미만	4(14.8)
	캄보디아	1(3.7)		4~6년 미만	6(22.2)
				6~8년 미만	0(0.0)
연령	21~25세	1(3.7)		8~10년 미만	5(18.5)
	26~30세	8(29.6)		10~12년 미만	3(11.1)
	31~35세	6(22.2)		12년 이상	3(11.1)
	36~40세	7(25.9)	결혼 전 한국어 학습	있음(조선족)	3(11.1)
	41세 이상	5(18.5)		약간 있음	11(40.7)
				없음	13(48.1)

*결측치를 제외한 수치로 배경 변인별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

설문 문항은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배경 정보	이름, 국적, 나이, 한국 체류기간	4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정보	결혼 전 한국어 학습 입국 후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가족의 협조 가족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4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자녀의 나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 자녀와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3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와 모어로 의사소통 할 의사 모어를 가르칠 의사 모어의 사용 여부	3

설문조사 내용(논문 참고할 것)[8)]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 전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설문자 중 48.1%이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가나다라'를 알 정도, 또는 1~3개월 학습하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조선족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할 때는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교육하기를 바란다. 특히 가족인 남편과 시부모들이 원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살 사람들이니 어려서부터 한국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보편적으로 일본인 엄마들은 한국어를 못하여도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다. 반면에 필리핀인은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를 못해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필리핀인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8) 아래 내용은 본국적, 이름, 나이, 한국 체류기간, 결혼 전 한국어 학습 정도를 나타낸다. 설문 내용에서 숫자가 같으면 동일 계열 물음에 대한 반응이다. 예를 들면, 1. 입국 후 한국어 학습 정도 2. 자녀의 나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상황 3.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가족의 협조 4. 자녀와 모어로 의사소통 할 의사 5. 모어를 가르칠 의사 6. 자녀와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7. 가족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8. 모어의 사용 여부 등이다. 개별 설문 대상자의 특징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설문 결과를 인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대해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잘 하면 이점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인이 자녀에게 타갈로그어를 가르치거나 캄보디아인이 자녀에게 캄보디아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타갈로그어나 캄보디아어는 배워야 아무 쓸모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결혼이민자가 가족을 설득하여 모어를 가르치려는 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의 반대로 이중언어교육이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일본인과 중국인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일본어나 중국어를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컸을 때 조금씩 가르치는 방식을 택하였다. 중국인 중 조선족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영어식 외래어나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표현이 낯설다고 답하였다.

공히 발음과 단어 부분에서 한국어가 어렵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어렵다고 답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답변하였다.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족들이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어를 사용하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국의 친구들과 만나거나 고국에 전화를 걸었을 때 모어를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간혹 남편이 결혼이민자의 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남편과 대화할 때 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9]는 답변이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모어 사용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Ⅲ. 호주의 이중언어교육 정책

호주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는 권순희(2006)을 들 수 있으며, 호주의 자국어교육에 대한 실태는 권순희(2001)에서 실라버스와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호주의 한국어 교육은 서혁(2004)에서 정책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호주의 사회과 수업을 통하여 교실 수업 활동을 관찰하고 있는 조영달(2004)은 일반론적인 논의이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호주에서 이중언어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SL로서의 영어교육과 소수언어보호정책에 따른 소수언어교육과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그리고 다문화 교육정책에 따른 이중언어교육[10]이 그것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소수언어교육(계승어 교육), 다문화이해를 위한 외국어교육, 국어교육 등에 적용할 수 있다.

1. 호주의 영어교육(자국어 교육) 정책

권순희(2006)에서는 호주의 언어교육 정책을 영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호주의 영어 교육은 연령별로 구분을 두어 실시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기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 이민을 온 사람의 경우 성인과 학생으

9) 하수권(2008)에서는 두 명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가 학습자인 동시에 상대방 학습을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수법으로 탄뎀(tandem)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이 교수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상호교수학습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10) 각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순희(2001)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다문화 교육정책에 따른 이중언어교육만을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로 구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화된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는 시드니 내에 각 지역별로 이민자 어학원이라는 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생의 경우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 '랭귀지 스쿨'이라는 어학원에서 일정기간 영어 교육을 받은 후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격이 부여되고 정규학교로 이관된다. 이민자가 아니면서 호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을 위해 우리나라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인 카운슬에서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 교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강사들은 다양한 책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특히 카운슬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영어 교육의 경우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회의 영어 교육에서도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 결혼하고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이 영어교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랭귀지 스쿨을 거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서 수준(레벨)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어교육에는 이민자나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수준과 영어에 능숙한 이민자나 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수준이 있다.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이민자나 외국인은 ESL, 기본 과정, 표준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에 능통한 이민자나 본국인은 표준 과정, 고급 과정, 최고급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레벨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평가도 수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영어 도우미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어 도우미 교사는 다른 과목의 과제수행에도 도움을 준다.

2. 호주의(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 정책

호주에서는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에게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수 언어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영어교육 제도 못지않게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에도 개방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 2외국어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 아래 소수 민족의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소수 언어 정책은 소수 민족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 국민이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는 취지 아래 이루어진 제도이다. 소수 민족 차원에서 본다면, 이민자나 외국인 자녀에게 모국어를 알게 함으로써 부모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외교 정책, 경제 교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적은 기회비용으로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영어와 모국어(다국어)를 함께 함으로써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Ⅳ. 이중언어교육 정책 제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취학 전에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취학 후에는 국가 교육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 언어 능력의 부족은 취학 후 학습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어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과 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제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은 외국어 습득이기 때문에 유창성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자녀가 소수언어를 습득한다면 그 습득 정도가 빠르고 유창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KSL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한국어를 취학 전에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함께 학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새터민 자녀의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북한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남한은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 용어에서도 남한은 영어식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북한은 러시아식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 교과서에 소개된 외국 위인도 남한은 서유럽, 북아메리카 위주의 위인이지만 북한은 러시아, 동유럽 계통의 위인이다. 그 밖에도 귀국 자녀나 장기 외국 체류한 학생의 경우는 상황마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이중언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이론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교육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KSL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실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기간동안 한국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를 습득하여 학교 입학 적응을 도모하여야 한다.

학교 밖에 KSL 기관을 마련하는 문제와 학교 내에 KSL기관을 두는 방안이 있다. 학교내에 KSL반을 운영하는 형식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술 활동 위주의 수업에는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언어 활동이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수준에 맞는 KSL 과정으로 수업을 듣게 한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KSL 시간 수를 줄여가면서 일반학생 반에 편입하게 한다. 이때 KSL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생님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일정한 교직 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한 후에 학교에 투입하는 방안을 서울교대 다문화 센타에서 2009년 시행할 예정이다. 예비교사에게 KSL 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사 자격증에 부기하여 주는 제도 역시 권장할 만하다.

2.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정책

곽한영(2008 : 36)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다문화화 정책, 다제도화 정책, 다사회화 정책, 다평등화 정책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언어교육정책은 다문화화 정책의 일부로 소개하고 있다. 다문화화 정책은 언어, 규범, 가치관, 종교, 이념, 생활양식, 법 등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며 이중 가장 중시할 것으로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정책을 들고 있다. 이는 공식, 비공식 교육기관에서 주류 사회와 소수 사

회에 문화교육을 제공하고 또 각 언론매체에서 다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주류 문화의 구성원에게는 다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문화 이해와 타문화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 보조 교사 활용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습 내용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낮은 학업 성취 능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보조 교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습을 돕는다. 대학생 멘토링도 대학생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다. 특히 사범대나 교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임용 전에 학습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또, 외국어 관련 담당과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졸업생을 상대로 언어교육, 문화 교육, 통역 서비스 분야의 봉사 및 멘토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4. 다문화 이해 교육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수 학생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화합을 도모하게 한다. 제2외국어 교육을 언어차원에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호 문화 이해 차원의 교육으로 확장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5. 소수 언어 학습 기회 확대

방과후 교육, 지역 문화 센터 등을 통하여 소수 언어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는 해당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더 나아가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국민에게는 소수 언어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열린 사고를 촉진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이중언어초기에 소수민 동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우월주의에 기반한 동화 정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내향적 국제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이 미흡한 형편이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 지정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기미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을 통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인 경기미원초등학교에서 동일 연구를 시행하였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다. 진정한 의미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를 포함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이중언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문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첫째, 국어교육 내에서 다문화 사회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며, 언어 정책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은 국어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어교육계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언어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이 주제가 국어교육, 언어교육 내에서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 관련 언어교육 및 자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 내용은 후속 연구자들의 언어 정책에 대한 논의, 사회언어교육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언어교육 정책과 언어교육철학의 연구 범위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관한 언어철학적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킬 것이다.

넷째, 이중언어를 보다 빠른 시기에 배우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언어 사용자의 삶과 혼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소수 민족의 언어를 인정하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그 민족의 삶과 혼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이중언어교육 양상을 보면 이민자의 자녀가 대학 진학 후 모국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자신의 민족적 사회적 정체성을 성립하는 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 이중언어를 배운다면 대학 진학 후에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 발전 면에서 본 연구는 첫째, 국제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할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 속에서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교육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에서 이민자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곽한영(2008), “비교 다문화정책론”, 일반교사 다문화교육 연수,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권순희(2001), “호주의 자국어 실라버스와 교과서 분석”,『국어교육학연구』12집, 국어교육학회.

권순희(2006),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정책 모색－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27집, 국어교육학회.

권순희(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담지도 사례”,『국어교육학연구』제29집, 국어교육학연구.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국제정치논총』45(4), 한국국제정치학회.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윤(2004),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참여의 과제”,『청소년문화포럼』10,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김영아(1995), “호주의 한국어교육”,『이중언어학』제12호, 이중언어학회.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이중언어학』제33호, 이중언어학회.

박병선(2007), “대만동포의 한국어 교육－대만 한국어 교육 전반적 현황”,『이중언어학』33, 이중언어학회.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이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일지사.

박영순(1996), “미국의 이중언어교육이론 및 현황조사 연구”,『이중언어학』13, 이중언어학회.

박영순(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한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이중언어학』5, 이중언어학회.

박외숙(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
박준언(2006), “미국에서의 이중언어사용 및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천과정”, 『사회언어학』 3(1), 한국사회언어학회.
백종학・심진영(1993),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2세가 겪는 言語와 正體性의 문제”, 『이중언어학』 10(1), 이중언어학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 결과보고서.
서혁(2004), “호주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설기문(1993),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학생연구』 21,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 쟁점과 과제, 제11차 시민사회포럼.
설동훈・한건수・이란주(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손호민(1990),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신창용(2006), “EU의 다중언어정책과 소수언어 카탈루냐어”,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오은순(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연구(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윤희원 외(2006), 다문화가정 교육 우수사례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이경호(1997),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2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이광정(1998),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발전적 개선안－북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이선근(2007), “재미동포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이원희(2006), “학교 중심의 지역 사회 재편. 초등 교육의 혁신 방향과 전략”, 2006년도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이은희(2006), “미국 대학 한국어 강좌의 학습자 특성 연구－워싱턴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장한업(2005), “뉴질랜드 한국 교민의 자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어학연구』 4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조영달(2004), “교사의 교실수업활동과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 호주의 사례”, 『시민교육연구』 36(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조영달 외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조혜영・이창호・권순희 외(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제18권 제2호, 교육사회학연구.
통계청(2008), 2007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하수권(2008),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안”, 세계화시대의 다중언어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홍종선(2007), “재대양주동포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홍종선(2007), “해외이민초기사회의 한국어사용과 교육실태”, 『이중언어학』 제35호, 이중언어학회.
Bereiter C. & Englemann S.(1966), Teaching disadvantaged children in the preschool,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Dicker, S. J.(1998), “Adaptation and Assimilation : US Business Responses to Linguistic Diversity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vol.19, No.4.
Jensen, A. (1969) “How much can we boost IQ and scholastic achieve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39(1), 1-123.
Mary, S.(2005), “the Politics of Homogeneity : A Critical Exploration of the Anti-bilingual Education Movement”,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lingualism, ed. James Cohen, Kara T. McAlister, Kellie Rolstad, and Jeff MacSwan, 1560-1566, Somervilles, MA : Cascadilla Press.